

지역 소식통

김제 지평선아카데미  
정희원 교수 초청 강연

김제시는 오는 25일 제688회 지평선아카데미에 정희원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를 초청해 '느리게 나이드는 습관'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노인 의학 분야 권위자로 서울대학교 의대를 졸업하고 내과학 석사와 카이스트 이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대표 저서로는 '지속 가능한 나이들', '느리게 나이드는 습관'이 있으며, tvN <유 퀴즈>, <어쩌다 어른> 등 다수의 방송에 출연하였고 유튜브 및 강연 활동을 통해 노화에 따른 건강 문제와 예방, 그리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대중과 공유하고 있다.

이번 지평선아카데미에서는 영양, 운동, 스트레스 관리 등 생활 실천 방법, 아프지 않고 느리게 나이들 수 있는 건강 솔루션 제시 등 생애 주기에 따라 노화 속도를 느리게 만들고 내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체육회, '학교체육  
시설개방 리그전' 성료

김제시체육회(회장 한유승)가 주최·주관하고 대한체육회가 후원한 '2024학교체육시설 개방 클럽 리그전'이 지난 17일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시 체육회는 관내 학교체육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학교체육시설개방지원 사업'을 지난 2016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관내 금산중·고등학교(기존개소)에서 봉남중학교(신규개소)까지 1개소가 추가되어 총 2개소에서 동호인들이 평일 방과 후 및 주말 공휴일 등에 운동할 수 있어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이번 개최식을 시작으로 남자복식, 여자복식으로 경기를 진행했으며 처음으로 개최하는 리그전인만큼 동호인들의 관심과 호응, 높은 참여율과 더불어 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김제=곽노태 기자

# 운전자 피해 입어도 '나몰라라'

용진~소양간 천연가스관 공사현장, 운전자들 흠먼지·핑크·사고 위험 등 불만 고조



"천연가스관 설치하는 주민들을 위한 공익사업입니다" 지난 19일 천연가스 용진 신지리~소양 대흥리간 공사현장 비포장도로를 운행하다 타이어 펑크가 났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에게 공사현장 관계자가 단정 말한다. 공사현장을 통행하는 운전자들은 피해를 입어도 참아야 한다는 말로 들린다.

피해자 A씨는 이날 점심식사를 위해 지인 6명과 함께 완주군 소양면 한 식당으로 가던 중 공사현장(간중리~송광사 사이 왕복 2차선) 비포장 구간에서 니사뭇이 타이어에 박혀 바람이 서서히 빠지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A씨는 "이날 전주 송전동에서 완주군청까지 포장도로를 이용해 출근, 차량을 주차장에 주차하고 점심 식사차 차량을 이용해 소양면을 다녀와 다시 완주군청에 주차 후 퇴근 시간에 퇴근하다 느낌이 이상해 차에서 내려 타이어를 점검하니 앞타이어 바람이 거의 빠져 수리를 했다"며 "최근에 차량운행은 출퇴근 때만 했고, 이날 시간상 타이어 펑크 난 곳은 이 공사현장 아니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사현장 관계자는 "니사뭇이 타이어에 박히면 3~4일 지나도 공기

2031년 12월31일까지 완주군에서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 현장은 공사초기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용진 신지리~소양 대흥리간 왕복 2차선도로는 평소에도 고급 외제 승용차량, 대형트럭 등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공사초기부터 공사차량 흠먼지, 통행시 공사현장 장비 및 인부와 추돌사고 위험성 등이 있어 운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차량정체가 심함은 물론, 비 올 때나 살수차 운행시 도로바다 흙탕물로 인해 세차해야 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이 공사현장을 피해 멀리 우회도로로 통행하는 불편함을 운전자들이 감수해야 했다.

오죽이나 했으면 공사현장에서 "일단정지 시켜서 정말 죄송합니다. 가스배관이 땅속으로 들어가는 중입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너그라이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입간판을 세웠을 정도다.

20일 피해자 A씨가 만난 한 신호수도 "차량통제가 합당하게 아니라 차량정체로 인한 운전자들의 심한 불만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제일 힘들다"고 귀띔하기도 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 "완주군 무시 발언 철회·사과하라"

완주군의회, 김관영 도지사 발언 관련 성명서 발표

"완주군을 무시한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를 통한 김관영 도지사의 발언을 두고 완주군의회 유익 의장이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22일 완주군의회에 따르면 이날 완주군 브리핑룸에서 유익 의장을 비롯해 완주군의회 의원 11명 전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 지사 발언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 16일 제42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된 권오안 도의원의 긴급현안질의에서 김 지사는 '완주전주 통합반대 완주군민 대책위원회'와 '완주군의회'에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군민들에게 전달하여 반대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유익 의장은 김 지사의 발언에 대해 "완주군민을 대변하는 기관인 완주군의회와 반대의 뜻을 가지고 활동하는 완주군민을 무시했다"면서 평가절하했다.

특히, 유 의장은 "김 지사 본인의 공약으로 인해 통합논의가 재점화 된 것은 인정하지 않고, '모든게 완주군민의 선택에 달렸다'는 식의 무책임한

발언이 완주군민을 더욱 분노하게 했다"며 "완주와 전주의 통합만이 전북을 살릴 수 있는 것처럼 포장하여 전북자치도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도민 모두를 우롱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노를 표했다.

유익 의장은 완주·전주의 통합이 전북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요구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지사는 완주군민 앞에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할 것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된 공약을 즉각 철회할 것 △완주·전주 통합을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유익 의장은 완주군을 무시한 발언을 한 김 지사에게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하며 "김 지사의 즉각적인 사과와 공약철회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완주군은 지속적이고 독자적인 성장과 발전이 충분한 동력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한 뒤 "완주군민들에게 완주·전주 행정통합의 허구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군의회 차원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 강력한 대응을 계속 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 완주군수 "호우 피해복구 총력 대응"

수해복구·주민 일상회복 지원 등... 행정역량 집중 주문

유희태 완주군수가 22일 간부회의에서 집중호우 피해복구와 주민 일상회복 지원에 총력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유군수는 이날 간부회의를 통해 "신속한 피해복구, 피해주민의 일상회복지원, 2차 피해예방을 위한 예방과 점검활동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완주군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내린 집중호우와 관련하여 20일 오후 7시 기준 429억1,800만원의 피해가 발생

했다.

유형별로 보면 도로, 지방하천, 소하천 등 공공시설 피해는 147건 238억 5,000만원 상당이며, 주택침수, 농경지 유실 등 사유시설 피해는 4,378건 145억6,800만원에 달한다.

유 군수는 "기후이변으로 인해 극한 호우, 태풍 등의 발생빈도가 많아지고 피해 규모도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구조개선 등 내수침수 위험요인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각종 재해 위험지

구 정비와 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도비 등 재원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유군수는 주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연말까지 공약 이행률 60% 이상 달성을 목표로 역점 추진하고, 공약사업의 준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예산, 공모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폭염에 대비하여 고령층,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호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수인·식품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에도 철저를 다할 것을 강조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 김제시, 전략작물직불사업 하계작물 신청... 7월31일까지 연장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하계작물에 대한 전략작물직불사업 신청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전략작물직불금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더해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지난 2023년 처음 도입됐다. 전략작물은 식량작물의 제고와 쌀 수급안정, 논 이용률 향상을 목적으로 밀·콩 등

수입 의존성이 높거나 쌀발용 배 대신 논에서 재배하는 작물을 말한다.

올해 전략작물직불사업은 기존 논콩에 한정했던 두류의 품목을 쌀·녹두·완두·잡두 등 두류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했으며 하계작물인 옥수수도 추가했다.

전략작물(하계) 지원단가는 1ha당 두류와 가루쌀은 200만원, 식용 옥수수

는 100만원, 하계 조사료는 430만원이다.

신청방법은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가루쌀, 두류, 옥수수, 조사료 등 하계작물에 한하여만 신청 가능하다. 지급대상자로 등록되면 이행점검(하계 8~10월)을 거쳐 연말에 직불금을 받게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 백산인삼영농조합법인 인삼식혜 미국 수출

김제시는 백산인삼영농조합법인(대표 김태영)가 22일 밀톤즈(이사장 이주영)와 함께 인삼식혜를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4번째 인삼농사를 이어온 김태영 대표는 인삼을 재배하는 것, 뿐만아니라 식품제조공업으로 홍삼액, 인삼식혜, 인삼비빔밥 등을 제조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4월 인삼식혜 2,340명이 미국으로 첫 수출에 성공했으며 지난 6월 1,300명에 이어 이번 선적량은 1,560명으로 수출 판매량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번 선적식을 통해 인삼식혜가 미국 한인 마트에서 판매되며 김제쌀 및 인삼 가공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K-Food 판로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된다. 인삼식혜는 직접 농사지은 인삼과 신동진 쌀에 국내산 토종생강, 옛 기름을 첨가해 만들었고, 무합성첨가물 식품으로 국내산 100% 좋은 원료만을 가지고 만든 식혜다.

또한, 기존 전통 식혜의 끈끈하고 텁텁한 맛이 아닌 청량하고 깔끔한 맛으로 인삼 향이 맵땀아 국내 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기호를 만족시켰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